

# 2011 국제광산업전시회

국내 최대의 광산업 전문 산업박람회!

## International Photonics Exhibition 2011

**2011. 10. 4(화) ~ 6(목)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Oct. 4(Tue) ~ 6(Thu), 2011 Kimdajeung Convention Center, Gwangju, Korea**

[www.photonicskorea.org](http://www.photonicskorea.org)

- 국내외 유수의 광관련 기업 및 전문가 참가
- 광관련 신기술 교류 및 이전의 장
- 실질적 구매력을 갖춘 양질의 해외 바이어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 국내 최대규모의 LED, 광통신 등 최신의 광산업 제품전시 및 기업참가





전자신문 서인주 기자 sij@etnews.co.kr

## ‘2011 국제광산업전시회’ 10월 4일 개막 국내외 광산업 최신기술 및 동향 ‘한눈에’

미국, 러시아 등 국내외 150개사 광산업체 참가 눈길

국내외 광산업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1 국제광산업전시회 및 국제광기술컨퍼런스’가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식경제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내외 150개(250개 부스) 업체가 참가해 광산업 관련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전시회는 광산업뿐만 아니라 IT를 비롯해 조선, 농업, 건설 등 광융합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대형 전시회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광산업은 산업전반에 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업종과 다양한 교류와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웨이브랜스케크와 일본의 슈미타옴티컬글래스 등 광통신을 비롯해 광센서, 광섬유, LED, 신재생 에너지, 광융합 기업 150개사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해외판로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러시아와 LED 수출컨소시엄관을 공동 구성기로 했으며, 중국관을 별도 구축해 중국기업 10곳도 유치했다.

국내에서는 아이엠, 에이팩, 태종씨앤아이, 태평양기술 등이 참가해 저탄소 녹색 성장에 맞는 LED와 융·복합 제품을 선보인다.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초청지원제도도 운영된다. 광관련 업체를 비롯해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초청하고 싶은 해외 바이어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신청하면 업체당 4명, 1인당 70만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전시회와 함께 ‘광산업마케팅 시장동향 및 기술 동향’ 을 다루는 국제광기술컨퍼런스와 미국·일본·러시아 등 약300여명 해외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 및 LED조명 특별 전시관, 대·중소기업 부품조달 설명회, 광 관련 유관기관, 호남광역권 선도산업, 유망공동상품 홍보관, 러시아 CIS 수출 컴소사업 공동관구성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산업 제품 및 광융복합 제품이 주류를 이루어 있다. 향후 광주 지역 광산업 육성의 방향과 광주 R&D 특구 지정에 따른 전략적인 타겟시장을 예측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단의 ‘유망공동상품관’ 에서는 호남권 R&D 과제 참여업체가 참가해 사업성과 홍보관 등을 구성한다. 이 관을 통해 LED를 활용한 식물생장 자동화 시스템을 비롯한 조선산업의 선박과 광산업을 융합한 안전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광산업의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융합기술 개발의 성장가능성을 조망하게 된다.

▲우리로광통신 ▲오이솔루션 ▲휘라포토닉스 ▲신한포토닉스 ▲링크라인아이엔씨 ▲글로벌광통신 등의 광통신기업들의 경우 FTTH 관련 광통신부품과 광케이블 제품을 전시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전시회와 병행되는 제10회 국제광기술컨퍼런스(PTC 2011)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LED, 태양광, 광통신 등에 대한 세계 첨단 기술동향이 집중 소개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정보와 동향을 나누고 광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신기술 및 시장동향에 대한 열띤 토론과 정보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규중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광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된 광주에서 한국 광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고 업계 간 활발한 정보교환 및 홍보마케팅의 장이 될 것” 이라며 “구매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해외바이어가 다수 참여하는 만큼 활발한 상담과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회째를 맞은 국제광산업전시회는 올해도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유망전시회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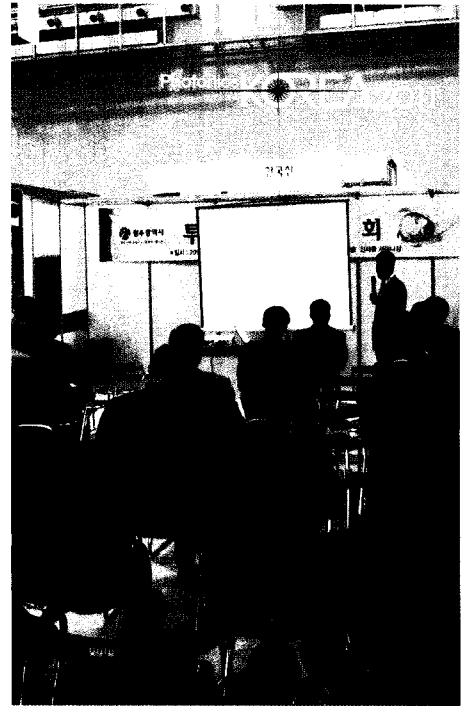
## 2011광산업전시회 희소식 피피아이 등 5개사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2011국제광산업전시회에서 피피아이를 비롯해 글로벌광통신, 선일텔레콤, 프로맥엘이디, 세오가 광산업 우수기술 및 제품개발업체로 선정돼 10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여받는다.

이날 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광주시 정신옥 주무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심권 선임연구원, 정태문 고등광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도 표창을 받는다.

심사결과 피피아이는 PLC 스플리터를 100% 국내기술로 개발해 가격경쟁력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기업들의 선례로 남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글로벌광통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파이버레이브룩을 독자 개발해 국내외 시장을 구축했으며, 정밀화학에칭 방법을 사용해 대량생산 및 불량률을 최소화 했다. 또 중국, 베트남 등에 FTTH시장을 개척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일텔레콤은 90%이상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현장조립형 광통신 네트워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프로맥엘이디는 자연대류방열방식의 냉각기술과 엔지니어플라스틱을 적용해 기술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세오는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를 통해 야간에 레이저빔을 발사해 차량운전자의 시야확보와 보행자의 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실제 지난해 시범설치된 광주남구의 경우 뺑소니 사고건수가 46건에서 6건으로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됐다.



# International Photonics Exhibition 2011

### 전시품목

- 광통신, 광통신 부품, 광원(LED) 및 광전소자(태양광), 광전 변환기, 광정밀기기, 광계측 및 센서기기, 광소재, 광소재부품, 광정보기기, 광정보 저장매체, 영상표시기, 광학기기, 화상기록재생
- 광융복합 분야(광+IT, 광+자동차, 광+조선, 광+금형, 광+건설 등)

[www.photonicskorea.org](http://www.photonicskorea.org)